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제1206호
9월 10일
2022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회비 계좌번호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농협
301-0153-7296-01

■ 예금주
예수교대한예수교총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67 주관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정책위원회에 추천 의뢰 결의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2차 모임 가져

교단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인찬 목사는 지난 9월 6일(목) 오전 11시 2차 모임을 갖고 7차 총회 임원선출과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임원진 구성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모임은 조경래 대표 회신으로 인해 비대면 회상 및 총회 선회의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 김인찬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었다. 김인찬 목사는 대표로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으로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말하고 지난 8월 30일까지 임원인후보자가 있음을 보고하고 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정에 차질이 없도록 모임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이출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총회선출기회를 간구하고 이를 위해 기도를 당부했다.

끝으로 이어진 회의에서는 서기 강태권 목사의 경위보고를 통해 지난 8월 30일까지 임원 인후보자가 없음으로 한발에 따라 정책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하기로 결의했다.

정책위원회에서 임원진에 추천되면 관련서류를 정리 자격심사를 거쳐 임원진을 공포하게 된다.



김인찬 목사
선거관리위원장



권광석 목사
선원위원



오영식 목사
선원위원



강태권 목사
선원위 서기



▲사진은 선거관리위원회 2차 모임 풍경



‘절대적 판단기준과 적용’

“이 불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수 1:7,8)



조국목사

우리는 여러 신체 기관들의 기능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경험, 관습, 제도, 규약, 법 등을 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계시되어 있는 책이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절대적 기준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삶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는 그 절대적 기준에 대한 지식의 깊이와 적용의 범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증명하는 사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시고 하라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행하여 유약한 끝에 가나안의 남부 경계선인 비산 광야 가데스 바네아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모세가 이곳에서 열두 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송하였습니

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온 땅을 40일에 걸쳐 정탐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가나안 땅이 과연 험하고 골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을 확고하고 느낀 것은 열두 명이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정탐하는 일에 대해서는 견해가 달랐습니다. 과학적 분석이라는 측면에서는 열 정탐꾼들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의 현실 상황에 대한 견해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측면에서의 견해는 서로 상반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정탐꾼을 노키며 반사도 한탄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한 그들의 말대로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은 말하기를 “여호와께 여호와와 우리들 그 땅으로 인도하여 갈에 말하게 하여 해하고 우리 처지가 사모할지라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쳐 멸약하고 약한데는 대까지 이르게 되면 자기의

의 상태가 되고 맙니다. 백성들은 또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한 정탐꾼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였습니다. 한 정탐꾼이 망한 정탐꾼을 무시하고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이성과 열 지혜는 절대적 기준을 내세웠기 때문에 육이 속한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정당한 결론에 빠지지 못하고 지도자를 망명했으며, 하나님을 망명했습니다. 부당한 이익을 갖고, 망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제가 이렇게 진전되는 것을 본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뜻을 꺾었습니다.

성경에서 뜻을 꺾는 행위는 대개 마음에 느끼는 각별한 슬픔이나 엄한 고통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생각과 태도를 바로 잡기 위해, 믿음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하였습니다. 먼저 가나안에 대한 정보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있어서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신앙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께 기쁘게 하는 것이었는지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사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만 하는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를 정확하게 말하게 됩니다. 열 정탐꾼은 하나님의 행위를 받아 재앙으로 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뜻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고 골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정보 그 자체가 우리를 흥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정보에 대한 분별과 선택과 결단이 거기 예상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일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리라. 진실과 정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은혜와진리교회)

교단 제68차 총회 제39회 임원회

국가안보와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위해 기도

예배 회복에 전력, 코로나감염주의 방역 철저



신재환 목사
예배회 총회장
새생명교회 담임

이날 회합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총무 이경진 목사의 사위로 시작되어 서기 정영진 목사의 대표기도, 총회장 신재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단 610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다시 열은 자기가 여수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면 사자 군에 단장될 것을 알았지만 조도도 요동치 않고 예전처럼 정복을 할까 싶어놓고 보던 것이 기도했습니다. 다시 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믿었더니 후시 그리 아니하시리요. 주를 위하여 죽을 것

을 요했었던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순교요 순교 신앙이 고귀한 믿음일 뿐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리 은혜만 하더라도 가까이 목숨을 드릴만큼의 사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라고 전하고, 이처럼 환경에 굴복하지 못하고 담겨진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임원들은 각종 병행법, 차별금지법 제정반대를 위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예배회복을 위해’, ‘국가안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후 부흥회장 정영진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끝으로 이어진 임원회는 재부 한순간 목사의 개회기도 후 총회장 신재환 목사 주례로 서기 정영진 목사의 회합헌법, 신재환 목사 개회선언, 총무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으로 10월 17일 개회할 정기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모임을 개최하여 제7차 총회 임원인후보자 등록 일정을 수립하게 됨을 보고했다.

이후 재부 한순간 목사의 수임보고 회계 감사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진행되었다. 결의 및 안건으로의 사항으로 교회주선반 보고, 교역자 휴직원 등 결의 및 보고되었다.

이후 감염병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되어 있지만 다시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다시 교회별 방역을 강화하여 교회별 감염 소식이 극소화된 수 있도록 방역과 관련하여서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 17일에 개회할 예정인 교단 제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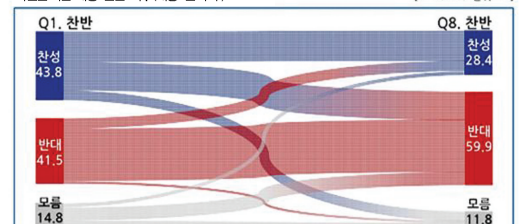


차 총회는 확진자가 최근 급증함에 따라 방역 당국의 발표와 조치를 면밀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왜 차별금지법 설문

차별금지법 제정 찬반 여부(내용 인지 후)

[N: 3,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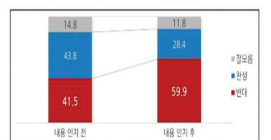
▲내용을 알기 전과 후 비교 찬성 하던 이들이 대거 반대로 돌아왔다.

차별금지법, ‘모를 땐 찬성 알면 반대’ 배로 증가

동반연, 리얼미터 설문조사 의뢰 결과 발표

차별금지법 설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를 때는 찬성, 알고 나면 반대 한다는 설문 결과가 최근 조사시 발표되었다.



▲내용을 알기 전과 후 비교.

최초 차별금지법 찬성 비율보다. 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이후 찬성 비율이 44%에서 28%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

이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한대국민연합)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지난 8월 12-13일 전국 1만8천여 이 상 성인 남녀 3천 명을 대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다(여론조사 5% 신뢰수준에 ±1.9% 오).

한대연조사에서는 첫 번째로 ‘성별,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하는 모든 차별을 금지’ 한다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질문했다. 이에 ‘찬성’이 43.8%, ‘반대’가 41.5%, ‘잘

못’이 14.8%였다.

첫 번째 설문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국가인권이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예들) 제정 명분으로 삼고 있는 ‘성별 결과 국민의 80-90%가 찬성하고 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발안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했던 설문조사도 찬반이 거의 반반씩 나왔으며, ‘잘못’을 포함한 ‘찬성하지 않음’ 여론이 더 많다.

이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거나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잘 안다’ 16.4%, ‘아는 정도’ 42.4%, ‘아니 정도’ 36.4%가 있다고 답했다. ‘별로’ 알지 못한다는 26.8%, ‘전혀’ 알지 못한다

68%로 총 33.6%가 잘 모르고 있었다.

세 번째로 ‘동성애의 선전적 여부’를 질문한 결과,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61.2%, ‘우호적(선전적)’이라는 응답이 24.9%, ‘잘못’이 13.9%였다. 국민들 2/3 정도는 동성애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네 번째로 ‘성적 지향’을 묻는 설문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여성 화장실·탈의실 등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81.6%가 ‘반대’했고, 찬성은 9.9%에 불과했다(잘못 8.5%).

이전 번째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성수가 여성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도 되는지’ 질문한 결과 63.6%가 ‘반대’했고, ‘찬성’은 25.6%에 그쳤다(잘못 11.2%).

이전 번째로 ‘법을 제정해 학교에서 동성애와 성전환을 인정하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반대’가 55.5%으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은 30.8%이었다(잘못 12.7%).

69%로 처음 질문했을 때보다 18.4% 상승했다. 그 때로 ‘찬성’ 하다는 응답은 28.4%로, 43.8%에서 15% 이상 감소했다.

특히 설문 분석 결과 차별금지법 내용을 알기 전 찬성했던 응답자 중 41.5%, ‘잘 모를’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7.2%가 내용 인지 후 ‘반대’로 돌아왔다.

동반연 측은 ‘차별금지법’ 내용을 모르면 찬성하고 알면 반대하는 법이라는 결과가 또 다시 나왔다. 특히 차별금지법을 잘 안다고 답한 사람 63%가 반대했다. ‘차별금지법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인지’ 이해 여부가 응답자의 찬반 입장 결정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5월 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57%, 반대 29%라는 결과가 나왔고, 4월 인공위성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는 차별금지법 필요성에 ‘동의’ 67.2%, ‘비동의’ 28%였다. 인공위성은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미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6면에서 이어짐

악탈을 위해 슬쩍하고 외국인들을 노예로 삼는 일은 흔한 일이었고, 어찌 보면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다. 푸틴이 무모하리만치 몰아붙이는 전쟁 놀음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하다. 독대한 한 국가의 국민들이 물리적으로 지킬 수 있는 영토와 일치했다. 러시아는 스스로를 사면초가에 몰린 문명의 전초지대로 이 문명의 안정은 러시아가 이웃 국가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두 대륙에 걸쳐 있지만 결코 어느 쪽에서도 편치 못한 특한 '유라시아' 국가로 남게 되었는 사실이다.

다섯째, 푸틴은 KGB 출신으로 정치적 야망을 실현하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핵심적 배경은 푸틴 대통령이 구소련의 세계적 정복자였었던 KGB 출신이라는 점이다. 그는 국제적 정복관과 정복적 판도라를 무기로 대통령이라는 최고의 권위에 올랐다. 그는 국내 권력 장악 측면에서라면 우크라이나 침공 강행에 있어서 매우 치밀한 정복관 판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KGB 정복가 본래의 이 점이 푸틴에게는 가장 취약한 부분이 극복하기 힘든 본체가 될 수 있다. 전쟁은 정복관에 의해 승패가 좌우된다고 한다면 미국 CIA 등의 정보제공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손자가 강조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도 위태롭다. 이때(知彼知己 百戰百勝)는 법이 통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유럽과 러시아를 잇는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농토를 갖고 있어 식량의 보고이며, 러시아의 소유권이 유럽으로 뻗어나는 등 에너지 및 교역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다가 무력으로 파괴되고 무너지는 것은 세계가 원하지 않는 일이다. 자유세계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생명과 재산, 평화와 안전한 삶을 지켜주어야 한다.

5. 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 승리를 위해 전략적 사고와 행동을 해야 한다. 19세기 비스비르크는 '우리는 강자의 망명일 때

문에 강자가 약화되고, 약자의 대담함 때문에 약자가 강해지는 놀라운 사태에 살고 있다'고 했다. 그의 말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 앞에서 곱씹어 보아야 할 객관적 몇 가지 관점을 제공한다.

첫째, 러시아가 말하는 평화란 허울에 불과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같은 독재국가 체제 시하는 '사회주의' '반제국주의', 또는 '평화'라는 것이 거짓이고 허울뿐이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소극적 내지는 망설임의 태도만큼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러시아와 같은 성향의 중국이나 북한을 대항해야 하는 한국의 외교는 더 이상 이러한 허위의식에 휘둘리지 말고 국익을 제대로 파악하는 '지'의 '인'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이긴다면 더욱 요박할수록 지이다.

만약 러시아가 마침내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여 전 러시아가 돌아선다면 공산체제의 유럽에 대한 확보는 더욱 요박할수록 지 것이다. 그리고 러중 간의 끈끈한 협력관계가 북한을 상대로 고무키 무력도발에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국의 안보는 한중불안정 속에 빠질 것이다.

셋째,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소련의 대립 구도 속에서 확실히 자유세계편에 서야 한다.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로부터 얻은 안보 위협이나 우크라이나 동부의 독재 구도 등을 침공의 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우크라이나가 자유 민주 체제를 지향해 독립을 유지하려는 의지 사이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해야 한다. 생전의 거사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갖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중관계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동맹국관계의 진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분별하고, 국가안보를 위한 더욱 탄탄하게 할 지혜를 구해야 한다. 국제정세 속에서 앞으로 해나갈 것이 합선전국 위상에 대한 전략을 세우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이제 경제·외교적 승상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이 자유롭게 서로 인정하고 있는 평화와 안전한 세상을 구현하는 데 일조하는 목적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2022년 9월 5일

심훈은 꿈꾸는 나비행동

아들이 남기고 간 생명의 가치 알린다

청소년 생명의나눔 홍보단 온(溫)팩트 3기와 생명의나눔 주인공과의 특별한 만남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만나니 하늘나라로 먼저 떠난 아들이 무척 그리네요."

노사 장기기증인 최이정 군의(기증 당시 나이 19세) 아버지 이대호 씨는 지난 6일 오후, 생명의나눔 장기기증운동본부 찾아 청소년 생명의나눔 홍보단 온팩트 3기 단원들과 마주했다. 이 씨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한 후, 생명의나눔의 가치에 대해 알고 있는 단원들의 얼굴을 보자 12년 전 하늘나라로 떠난 아들이 떠올랐다. 아들이 이대호 군 역시, 생전에 장기기증의 가치에 공감하며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고 싶어했다.

"고향생인 아들이 장기기증을 약속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에는 너무 놀라서 동의해주지 못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갑작스럽게 쓰러져서 뇌사 상태가 되었고, 나눌 뜻을 이루어주신 장기기증을 결정했습니다. 누군가가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면 여전히 가슴 한 편이 벅쳐옵니다." 라고 말한 이 씨는 온팩트 단원들에게 '장기기증의 아름다운 가치'에 공감해 홍보활동을 펼치는 데에는 어떤 것이 대견합니다. 더 널리 이 소중한 일의 의미가 전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제)사람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탁 목사, 이하 본부)는 8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본부 사무실에서 청소년 생명의나눔 홍보단 온팩트 3기 단원들과 생명의나눔 주인공들과의 특별한 만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대표회장 4명과 생명의나눔 주인공 2명만 대면으로 참여하고, 나머지는 비대면 방식(Zoom)으로 함께했다.

만 16~18세 청소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로 구성된 장기기증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온팩트 3기 단원들은 노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생전 시 장기기증인, 장기이식인과의 만남을 통해 생명의나눔의 가치와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본부 관계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특별한 만남의 취지 설명, 초청자와 온팩트 3기 소개를 이어 진행했다. 이후 노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이대호 씨, 도나메리리 김조 씨, 생전 시 장기기증인 조영애 씨, 심장이식인 사민환 소생관 등 생명의나눔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진평연 신임 대표회장에 김운성 목사

"불의와 맞서 소중한 나라와 믿음을 지키겠다"

영락교회 김운성 담임목사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다.

진평연은 지난 9월 1일(목)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이연에 신선휘 1년 임기의 대표회장으로 김운성 목사를 선출했다. 직전 회기까지 신임 대표회장으로 담임가 맡았던 상임대표가 대표회장직이었다.

서로게 신선휘 자원위원에 명제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연희원 변호사(서원대법원행정합 전문위원장, 윤석열 교수(충대 법대), 이상현 교수(충대 법대), 조재수 변호사(서울법률사무소 상임대표), 조영애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지드스 대표변호사),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변호사), 이봉화 대표(평등하는 프론티어), 이영진 소장(성신여대병원 연구실)이 위촉됐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부활의 주님뿐

한국원로목사총연, 원로목사 수요예배

(사)한국원로목사총연합회(명예이사장 원로목사, 대표회장 송용필 목사는)는 지난 8월 30일 오전 10시 목회자와 함께하는 수요예배에 YKC를 대표회장 양장 부 목사를 초청해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오세재 목사 인도로 김성철 목사의 대표기도, 김현진 목사의 성경봉독, 원로목사들로 구성된 목자 성가대의 '이 세상 함고'의 은혜로운 찬양, 공동회 장가기도로 양장 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양장 부 목사는 이날 마태 46 말씀을 본문으로 '영생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불안하고 불투명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지향할 것은 오직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며,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목사는 또 "우리가 영생(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내 마음과 목숨, 뜻을 다해 경건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만 의지해 나가자'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이날 참석한 원로목회자들은 '나리와 민족과 국가'안정, '한국교회의 부흥', 원로목사총연합회를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내가 전도자가 된 이유

전도왕 박영수 목사, 이수 교수를 만나서 전도특강을 들은 후 전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 '바로 이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나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라 믿습 받고 매일 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전도하는 것이 무렵고 땀났는데 지금은 전도하는 일이 너무 재미있고 주님게서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전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매일 전에는 공원에서 30분에서 1시간 영적기도를 해드리고, 하루 동안 24시간 영적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전도의 맛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못하는 날은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만 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생은 전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며 전도왕 박영수 목사와 이수교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교회 전도집회는 매월 첫 주 월, 화 박영수 목사, 이수 교수를 모시고 6개월간 전도강사로 초청했습니다. 전도에 관심 있는 교회와 기도원에서 두 분 강사님 모시고 전도집회 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접 체험해보십시오.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백아사 목사, 조예서 목사 안문나교회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회장

문화교회 TV방송대역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강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6691, 010370-2573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흥열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거노인, 장·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에서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고, 좀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력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흥열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흥열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5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박흥열 목사 수상경력)

- 2007. 10. 3 이천목회위원회 표창
- 2014. 12. 13 이천시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표창
- 2020. 12. 18 이천시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윤원길로 82(연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믿음으로 생애를 사는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연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사람에게 시간이란



사람들은 시간의 의미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는 말이 옳습니다. 늘 시간을 밟고 시간을 약속하고 움직이는 표지를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시간을 올바르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신비한 존재입니다. 시간으로 인하여 아이가 어른이 되고 젊은이가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시간은 절대로 다시 되돌아 가지는 못합니다. 그냥 앞으로만 가게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시간의 바다에서 살아야도록 창조주께서 정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도구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부자에게 한 시간은 가난한 사람에게도 한 시간입니다. 시간은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시간을 일을 그르쳐도 합니다. '시간이 약하면 시간이 해결해 준다니까!'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인생을 그 종용으로 이끌어갑니다.

시간을 말할 때 헬라어로 크로노스(Chronos)의 시간을 말하기도 하고 카이로스(Kairos)의 시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크로노스는 사람들이 보통으로 말하는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시간을 말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는 시간 즉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섭리들이 이루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간은 누구도 재물처럼 자축하여 나중에 사용한다거나, 또는 미리 가져다 쓰지 못합니다. 남들에게 대하지도 못합니다. 시간은 그때그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시간은 멈추어 있지도 않으니 시간은 언제나 현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란 동일한 한 시간 안에서 열차 여행을 하는 것인데 그 열차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시간 카이로스(Kairos)를 살아가는 이들이 복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약하니라"(렘 5:10)

초대시

전좌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예수님 손잡고...

인생의 광야에서 나는 유리하는 자였네
그 옛날 아벨을 죽이고
에덴의 동쪽으로 가버린 자의 후예였다네.
씻지 못할 죄인의 표.
무거운 짐 지고 가는 나그네 삶이었네

삶의 의미도 모르고 목적도 없는 인생길...
비 오면 비 맞고 대풍불면 쓰러지며
소망 없는 인생길 가는 자였네
죄가 무엇이고 죄인이 누구인지 모른 채
바람 부는 대로 유리하는 가없는 자이었네
.....

지금도 나는 그 광야 길을 걸어 간다네
여전히 바람 불고 광풍불어 나를 흔들지만
이제는 예수님 손잡고 평안히 그 길을 걷고 있다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보니
짓누르던 죄 짐 무거 것들보다 더 가벼웁네

예수님 손잡고 가는 광야길의 그 평안한...
약속하신 성령님 내 마음에 계시는 증거일세
가인에게 주신 표는 육체를 살리는 표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맘미암은 표는
영생을 주시는 완전한 표라네.



바로 그 유리하던 광야길에서 만난 예수님...
그리고 방황을 끝낸 나의 모습...가인의 표, 예수님 표.
하나로 묶여있는 생가를 글로 적어본 주일 새벽이다.
창 4:14-15 묵상하던 중 마음에 생가를 썼다

사설

지력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적반하장(賊反荷杖)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냉세난다고 하나가 사과는 커녕 오히려 상내는 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한 '담대한 구상'을 제시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것을 관해할 뿐만 아니라 '하리건 하리건 나 리고 비난했다'.

간접의 나이가 34세인데 62세의 윤 대통령을 향하여 이리라고 하는 것을 보고는 어딘지 실망했다. 천지본관을 못헤도 이 정도일거라는 생각이었다. 하긴 남 탓만 하고 상대편 함정이 좋아하는 사람치고 천지본관 잡히는 사람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국립전(前) 당(黨) 대표인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여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일 뿐 국민 누가 무엇에 대해서 속았다고 하는 것일까? 인기 1800만 중에 이제 겨우 100만 지남을 뺀다면 그렇다면 인기가 5% 지난 대통령에게 무엇이 속았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면 정권이란 어떻게 될까?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비난받고 조롱하고 비판하는 사람하고 대사를 논할 수 있을까? 모두를 적으로 만들면서 대사를 논한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속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일까? 이런 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속은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마시무스(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결투를 하기 전에 황제가 마시무스 영구리를 단칼로 머리 찢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는 데에는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일이다.

오만도 그런 오만이 없다.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려면 아직 멀었다. 1800만 중에 이제 겨우 100만 지남이 지났으니가 속았다. 부하들 발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속았다는 표현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적용해야 맞는 말이다. 취임사에서 한 번도 경향에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었다며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마구 뚫리고 있기에 때문이다. 그런데 한 번도 경향에 보지 못한 나라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나라였다.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속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제 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람에게 속았다. 그 중국도 한국에 대해 우습게 보고 적반하장의 일을 감행했다. 우습게 볼 때 적반하장이 일어난다. 2016년 주한 미군이 사드(THAAD, 고고도 지역방위 체계)를 도입하자 중국은 격렬한 반발을 보이며 한국에 대해

대대적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우리가 잘알다시피 중국의 반발은 억지로 적반하장이었다.

중국은 이미 2014년부터 한국 전역을 감시하는 레이다를 대거 설치해놓고 한반도를 감시하고 있었다. 자신들은 한반도를 감시하면서 한국과 주한 미군은 중국의 일부라도 들여다보려는 안 띌다는 것이다. 적반하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력까지 이를 데 없다. 중국 외교부는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에 대항해서 되겠냐?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고 했다. 외교적으로 일을 수 없는 안하무인의 언사였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짚고도 못했다.

문재인 정권의 중중(重重)태도는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도 남았다. 지금 생각해 보면, 당시에도 그랬지만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이다. 586 운동권 출신들이 공위하고 있는 뿌리 깊은 성향이 중중(重重)이다. 중국의 함정이 북한이든 이 중중도 할렐이다.

그런 사상이니 지난 8년간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런 문(文) 정부가 몰다(몰다) 이제는 진북 시민단체들이 대신 들고 일어났다. 한·미가 16일부터 을지유연방호(UF9호)를 시작하자마자 가드(가드)라는 뜻이 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북한의 지령같은 구호를 외치며 태(태)·미 대규모 군사 연을 짓밟게 버리자! 며칠을 열었다.

지도지도 못되는 사람이 지도자처럼 무난한 가진 정치인이 자기 국민을 속여 놓고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적반하장 행태를 부리고 있다. 자꾸만 누군가를 몰아내고 있는 나라인가를 몰아내고 있다. 아랍 때가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다. 성정은 어떤 권력도 영위하지 않고 고관(高官)의 하나같이 남(남) 집(집) 짓(짓)만 하고 권력의 지에 있을 때 대응적으로 공평(公平) 처리하라고 명령하신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악)의(악) 빛(빛) 보기를 안(안)까지 하려나. 나(나)는 사람처럼 죽으(죽으)며 고관(高官)의 하나 같이 남(남) 집(집) 짓(짓)만 하고 권(권)에 침(침)을 내려놓고 역사와 국민의 존엄한 삶(삶)에 겸(겸)하고 공평(公平) 일(일)의 자세로 다시 서(서)야 한다. 권(권)력을 할(할) 시간(時)에 국가(國家)의 당면(當面) 과제(課題)와 백(백)성(姓)을 살(살)리는 일(일)에 나서(나)야 한다. "지(지)력이 없(없)은 백(백)성이 많(많)아도 지(지)력이 많(많)으면 평(平)안을 누(누)리(리)나(나)"(잠 11:14)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현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재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제71차 정기총회 소집 공고

본 교단 헌법 제8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71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총회일자 : 2022년 10월 17일(월)
- 등 록 : 10월 17일(월) 오전 11시부터
- 개회예배 : 10월 17일(월) 오후 1시
- 사무총회 : 10월 17일(월) 오후 2시 30분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2
- 참석대상 : 총회 대의원 (교역자, 장로)

2022년 9월 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목사 신 재 영